

【7】이름 높고 소중한 명승고적들

1. 명승

(1) 산천

① 설화산

이 산은 온양 온천에서 동으로 10리 상거해 보이는 산인데, 산정에는 백제의 성지가 완전히 있고, 그 동북으로는 배방산이 솟아 있는데 역시 백제의 성지가 있으니 백제 당시 온양을 방비함에 있어서 그 중요 역할을 한 듯하다. 북에 곡교천이 흐르고 그 좌우평야에는 전답이 개척되어 주민의 식량을 제공한다. 이 산은 기이하게 솟아오른 모습에 맑고 빼어난 산세로 이곳의 영산으로 유명하다. 이 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쇠일(금곡)의 맹씨가 서쪽으로는 외암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② 곡교천

온양읍 주변에는 이렇다 할 만한 내나 강은 없지만 온양 온천의 북쪽으로 감돌아 흐르는 곡교천이 있는데 명승지라기 보다 수량이 풍부하여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2) 온천

온양 온천에 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 권 19에 의하면, 백제시대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고을 이름을 줄곧 탕정, 온수, 온창, 온천 등 온천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만 불리어 온 것으로 본다. 옛 온양군은 원래 백제의 탕정군이었는데 고려 초에 이르러 이름을 온수군으로 고쳤다. 조선 때에는 태종 14년에 온창, 16년에 온수로 고쳐 불리어오다가 세종 14년(1432년)에 임금이 온천에 거동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옛 기록에 ‘온천은 좌군서 칠리허에 있는데 병을 고치는데 효험이 있다. 조선의 세종 그리고 세조가 일찍이 순행하여 유옥했다. 그 때 머무른 어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두 임금 외에도 숙종, 영조, 정조 등 많은 임금이 자주 유옥하였다. 그 유적으로는 세조 때에 이 온천 옆에서 냉천이 발견되어 당시 상서의 발로이다 하여 팔도에서 하표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기록을 담은 주역신정비와 영조 35년(1760년)에 왕이 온궁에 왔을 때에 왕세자(사도세자)가 행계하여 무술을 연마하던 사장을 기념하기 위해 왕이 군수 윤염에게 명하여 사대에 3주의 괴목을 심게 하고 영괴대라 칭하였는데, 이곳에 정조 19년(1795년)에 세운 어제영괴대비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어실로 쓰이던 온궁은 원래 신정관(현 관광호텔온양) 터에 있었으나, 1904년 일본의 경제침탈에 의하여 철거되었다고 한다. 현종의 온천 임행에 관련된 다음의 시가 전해진다.

“온천이 중흥하니 온천을 생각하고 행전의 감회는 옛 생각이 깊었구려. 옛날의 누대 임금 모두 다 오시어서 이곳에서 주무시니 얼마나 다행한다. 옛날 일이 더욱 마음에 새롭다. 대나무로 병풍 치는 옛부터 전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 옛 생각 새롭구려. 근본 가지는 오히려 온전속에 머무는데 그 때 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서는구나.”

“행재소의 문 앞에 선 작은 비석은 지난 날 행임하던 때의 추억만 새로워라. 이제 옛일 생각하여 영각을 명하오니 이 사실은 어제 시에도 자세합니다.

온천중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 머물러 둔 것이고 하나는 정유년에 남긴 것이다.”

이같이 온양 온천이 발견되어 그것을 이용한 것은 매우 오래된 듯하다. 온양 온천에는 전다리(파죽)만 모인다는 전설도 있거니와, 일반 피부병에 유효한 온천으로 유명해지자, 고려, 조선을 통해서 널리 선전되었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조선조 제왕들도 이곳을 찾는 때가 많았던 모양이다. 조선 초기 몽암 이숙감의 영천서액시에서 온양 온천수의 효과와 경험함을 노래한 것만을 보아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온양 온천은 1960년대 이후 일반 피부병에 유효한 온천 개발을 주축으로 새로운 숙박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현충사 등 인접한 관광자원이 개발됨에 따라 더욱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오늘과 같은 번창함을 누리게 되었다.

전해오는 온양팔경(팔영) 중에 온양 온천과 인물 등에 관련된 제영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행전상운(이숙감)

춘풍가행호서로	봄바람에 어가가 호서에 거둥하사
온천시처연심주	온천 이곳에 깊숙이 어연을 머무르셨네
전상에애운엽부	궁전위에 애애하게 떠오르는 구름송이
상광서채산복취	상서로운 광채가 흩어졌다 다시 모인다
북연표묘봉래궁	북녘으로 아득하게 봉래궁과 연하여
성주효은담망중	성주의 효성 어린 생각 바라보는 중에
거시무정환유정	저 구름은 무정한 듯 하면서도 도리어 유정한 것이런가
황복작우자전공	하물며 이 비 다시 주어 전공을 도읍는다

▷ 행전상운(임원준)

암화계유영연로	바위 위의 꽃과 시냇가의 버들이 연길에 비치니
온천일구춘장주	온천 한 지역에 봄이 길이 머물렀다
봉가시종구천하	봉가 때로 구천으로 쫓아내려 오시니
가상이서쟁래취	아름답고 이상스런 상서가 모두 함께 모여 들었어라.
경운옥옥이행궁	상서구름 향기롭게 행궁을 뒤덮으니
순란오채부공중	순란한 도색 광채 공중에 떠 있어라
종지부춘택육합	저 구름 흩어졌다 다시 모여 천지와 사방에 윤기 줌을 알았노니
만물정양자생공	만물이 힘입어 사는 功을 우러러 바라노라

▷ 영천서액(이숙감)

화룽굴택심지저 화룽이 깊이 땅 밑에 굴을 파서
벽개천안병청차 샘길을 열어 놓아 맑은 물 솟아나니
애유영액쾌의인 따뜻한 물 신령한 진액이 사람의 질병을
쾌히 다스려
돈령침아자거체 해묵은 난치병이 저절로 떠난단다
삼전하옥조절선 세 전하 옥탕에 하임하사 옥체 피로
풀어 흡으실제
휘농활유증비연 윤택하고 부드러운 약물 마음껏 끼얹으
시니 떠오르는 저 물김은 연기가 아니다
일조세파침수주 한 번 씻고 나시면 성수 계산하는 수가
치 더 첨가했노라고
왕모기서청조전 서왕모가 보낸 글을 청조가 전해온다네

▷ 영천서액(임원준)

애약비탕청도저 따뜻하게 끓인 물 같고 맑기도 한없으니
순양복지시출차 불덩이 땅속에 묻혀 때로 물이 솟는다네
부유유고구 증려 고질 낮게 하여 만백성을 구제할 뿐 아
니라
적능척번조성체 능히 번뇌도 씻어 성체도 조호하나니
함운주옥하상선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옥 같은 것 퍼부어서
풀고 흩어버리시니
화기애애위상연 화기도 애애하여 상서 연기인 듯 하여라
분장여윤요가색 남기신 윤택 나누어 전답에 물 대면
누풍년송문상전 여러 해 풍년 든 칭송을 서로 전해 들으
리라

▷ 천주분선(이숙감)

행궁궁중천주포 행궁 궁안 우리 님 부엌에는
영포해착잉계모 바다진미 가득하고 들나물도 가지가지
일송호중제신료 호중 신료들에게 날마다 내리시니
① ① 팔진사락중사로 팔진 음식 끓이지 않게 풀어내는 중사의
② ② 발걸음도 수고롭다
③ 경사궁호우로향 또 다시 궁중 향아리의 단술을 내리시며
④ 십분선근중취광 십분 취하라는 권고까지 있어 취광이
⑤ 되어서는

⑥ 공도은사수무로 다같이 이르기를 흥은 갇을 길 없으니
 ⑦ 단원축수여능강 다만 축원컨대 저 육강 같이 오래오래
 ⑧ 수 하소서

⑨

⑩ ▷ 천주분선(임원준)

⑪ 타봉웅장영천포 낙타봉에 곰발이 천포에 가득하니
 ⑫ 부수심상지혈모 심상한 고기와 소채 어찌 이에 비하랴
 ⑬ 승은일일사팔진 은총 입어 나날이 팔진 음식 내리시니
 ⑭ 감격각참무촌로 감격도 하거니와 도리어 분춘의 공 없음
 ⑮ 이 부끄럽다
 ⑯ 황복황봉대어향 하물며 궁에서 빛은 술, 님의 향기 띄었
 ⑰ 는데
 ⑱ 포작금뢰희육광 금 술잔에 가득 부으니 이 기쁨 미칠 것
 ⑲ 같구나
 ⑳ 호가언시기불원 어가 호위하고 돌아갈 날이 멀지 않건만
 ① 욕망쌍궐등고강 쌍궐을 바라보고자 높은 봉에 올라본다

②

③ ▷ 신정근석(이숙감)

④ 세묘당년차임행 세조 당년에 이곳에 임행하니
 ⑤ 행전정심용신정 행전 뜰 한 가운데 신정이 솟아났다
 ⑥ 종신제예진제일 호종 신하의 제예 진정 당대 제일이라
 ⑦ 송덕웅사신수빙 성덕 칭송한 웅건한 그 문사를 한 붓으
 ⑧ 로 휘둘렀다네
 ⑨ 가감석각금완결 돌에 새긴 그 글자가 이제 벌써 깎이우
 ⑩ 고 떨어져 나갔으니
 ⑪ 승외광음경일별 20년의 평음이 한 순간임에 놀랐노라
 ⑫ 자성심측명중신 자성께서 이를 측은히 여기시고 중건하
 ⑬ 라 명하시니
 ⑭ 유전경빙태사필 뒷날에 흘러 전하는 건 다시 태사의 붓
 ⑮ 대에 빙의 하리로다

⑯

⑰ ▷ 신정근석(임원준)

⑱ 생봉성조성만행 살아서 성조를 뵈은 것은 진실로 만행한
 ⑲ 일
 ⑳ 호종당시도온정 호종했던 그 당시에 이 온정에 왔었노라
 ① 한천홀통양탕간 찬 샘물 홀연히 두 온탕 사이에 솟아올라

- | | | |
|---|---------|-----------------------|
| ② | 명신기사무사빙 | 신에게 기록하라 명하시어 거치른 문구 |
| ③ | | 붓을 달렸었네 |
| ④ | 미이십년자이결 | 20년이 채 안되어 글자 이미 상하였고 |
| ⑤ | 시이사개공경별 | 때 옮기어 세사도 변개 되니 |
| ⑥ | 공장경경춘초심 | 인생 일순임에 함께 놀랬노라 |
| ⑦ | 차루마애중재화 | 반짝반짝 한치의 적은 마음 다시 챙겨 |
| ⑧ | | 눈물 뿌리면서 돌 다듬어 거둬 필적 실 |
| ⑨ | | 있노라 |

⑩ 2. 고적

(1) 유적

① 온양 남산

고려 태조가 유검필로 하여금 탕정군을 지키게 하였을 때에 하루는 검필이 이 남산에 올라가 앉은 채 잠을 자는데 꿈에 대인 한 사람이 나타나 명일 서원(청주)에 반드시 변이 있을 것이니 속히 가서 구하라고 일러 주었다. 잠에서 깬 검필이 급이 청주로 진격하니 마침 후백제의 장군 김훤 등이 군병을 거느리고 청주를 침략한 것이었다. 검필은 적을 공격하여 독기령까지 추격하는 동안에 3백여 명을 살획하였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② 맹사성 고택

설화산을 서쪽으로 등지고 배방산을 동북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맹사성의 고택은 수백여 년간 무사히 보존되어 온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적이다. 고려 말 충신이던 최영 장군이 지은 건물로 그의 손자사위인 고불의 부친 맹희도가 물려받아 대대로 살아왔다.

건물의 구조가 중국의 서장성, 나마교의 불교 문화를 받은 고려식 기교로 되어 있어서 예술적인 면모가 확연하여 우리 한식 건물과는 상이한 점이 많아 고고학 연구의 자료가 된다.

‘ㄷ’자 형의 맞배집으로 목재는 광솔이 되다시피 묶어 그을렸으며도 기둥과 도리사이에는 단포로 봉설이 장식되었으며 실내 천정은 ‘소라반자’라 하는 흔히 볼 수 없는 나무 반자로 되어 있다.

현재 고택 옆에 있는 주택에서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이곳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택 옆에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맹정승이 직접 심은 것이라고 하니 570여 년의 수령으로 장대한 고목이나 아직도 가지와 나뭇잎이 무성하다. 그 밑은 석축하여 단을 만들어 앉아 쉴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을 행단이라 하였다. 지금은 맹고불의 고택, 구괴정, 쌍행수 등을 망라하여 온양 맹씨행단이라 한다.

유물로서는 옥필 1구, 목표 1개, 포도연 1좌, 옥인 1개가 있으며 또 맹정승의 부인이 사용하였던 옥잠 일병이 있는데 구리로 반을 마구리 하였다. 이것이 당시 대신의 부인용 비녀라면 오늘에 비해서 얼마나 검소 청렴 결백 했었나를 알 수 있다.

(2) 사우

사우는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을 홍모와 같이 바친 충신 열사와 문장과 덕행이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배향 하고 제사 지내는 곳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액사우와 지방 유림이 건립한 향현사 및 어느 씨족에서 선조를 모시기 위해 세운 문중 사당 등이 있다.

① 충효사

온양에 있었다 하나 옛날에 폐지되었다. 충무공 이순신과 창암 강봉수와 양심 윤현을 받들어 제사하였는데 역시 대원군 때에 철폐된 듯 하다.

② 세덕사

온양 금곡서원이 고종 5년(1868년)에 철폐 당한 후 현 위치인 배방면 중리(금곡)에 이전하여 본사를 건립하였다. 이곳에 상서공 맹유, 동포 맹희도, 고불 문정공 맹사성을 봉안하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자손과 유림이 모여 제향을 올린다. 그 이름을 세덕사로 정하고 그 자손이 수호 관리하고 있다.

③ 온양충효당별사

인조 갑인년에 건립하여 이순신, 조상우, 강봉수, 강백년, 윤현, 조이후, 남구만 등을 배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